

인천시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CONTENTS

- I. 인천시 노인 인구 현황
- II. 고령친화환경 개요
- III. 인천시 노인의
고령친화환경 인식과
생활 실태
- IV.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연구명	인천시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 고령친화환경을 중심으로
연구자	하석철(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연구위원) 이선영(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초빙연구원)
작성자	하석철(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연구위원)

[ICAS 정책이슈&진단은 센터 홈페이지(www.inlife.or.kr)를 통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고령친화환경은 노인의 삶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짐.
 - 고령친화환경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삶의 만족도, 안녕(well-being), 사회참여 등 노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짐.
- 인천시의 고령친화환경 수준은 세부 영역에 따라 다양함.
 - 인천시의 고령친화환경 수준은 영역마다 상이하나,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영역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고, ‘거주환경’ 영역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영역으로 나타남.
 - 대체로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영역들이 낮은 평가를 받음.
-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확충, 경제적 취약 집단에 대한 관심 제고 등
 - 지역사회 참여: 유휴 공간을 활용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노인 주(主) 이용 시설의 이용 편의성 증진 등
 -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 무인기기의 구조적 편의성 증진, 공공 인쇄물과 무인기기의 활자 가독성 개선 등
 - 노인 존중과 사회통합: 세대 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대중매체에서의 노인 이미지 긍정적·활동적 표현 등
 - 교통: 저상버스의 수 및 노선 확대, 대중교통 정보의 가독성 증진
 -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보건·복지시설의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 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주거환경: 저비용 주거시설의 확충, 노인 거주 지역의 범죄 안전성 증진
 - 거주환경: 보행환경의 개선, 공중화장실의 이용 편의성 증진

1. 인천시 노인 인구 현황¹⁾

1. 인천시 노인 인구의 변화와 현황

- 2018년 기준 인천시의 노인 인구는 약 352천여 명으로 7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중간 수준임.
- 인구의 동태적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 인천시는 198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1천여 명으로 7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노인 수를 보였음. 그러나 해당 인구는 2018년에 접어들어 352천 명으로 증가하여 대구시(353천 명)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이후 그 순위를 역전하여 서울시와 부산시에 이어 7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노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됨.
- 198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인천시의 노인 인구는 약 590.2% 증가하여 7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이후 30여 년의 시간(2018년-2045년)에 있어서도 인천시는 타 도시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203.4%)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인천시의 노인 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임.
- 1985년에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구성비는 3.3%로 광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2018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약 12.0%로 나타나 7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여섯 번째의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 2045년에는 다시 부산시와 대구시에 이어 세 번째로 노인 인구 구성비가 높은 도시(34.0%)가 될 것으로 예측됨.
- 노인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5년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구성비는 3.3%이었음. 이와 같은 구성비는 2018년에 12.0%로 증가하여 약 263.6% 증가함. 2018년 이후 2045년까지 향후 30년 동안에는 약 183.3%(2018년: 12.0%→2045년: 34.0%) 증가할 것으로 보임.

1) 이하의 인천시 및 각 군·구의 인구 현황은 통계청(2017a)의 「장래인구추계」와 통계청(2018a)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2012; 2017b)의 「인구총조사」, 통계청(2018b)의 「인천광역시군구 별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함.

2. 인천시 군·구의 노인 인구 변화와 현황

- 2018년 3월 기준 인천시 10개 군·구의 노인 인구 현황은 부평구가 약 65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노인 인구를 보임. 그 뒤를 미추홀구(약 61천 명)와 남동구(약 60천 명)가 이으며, 옹진군이 5천여 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냄.
- 그러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노인 인구 구성비는 절대적인 노인 인구의 모습과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임.
- 구체적으로, 강화군이 3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옹진군이 22.8%로 두 번째로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임. 즉, 10개 군·구 중 두 군(강화군 및 옹진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타 구(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1995년부터 2035년까지 10개 군·구의 노인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에 노인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미추홀구로서 약 20천 명이 65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부평구와 남동구는 각각 19천여 명과 15천여 명의 노인 인구를 보여 그 뒤를 이었음. 추계자료를 이용한 2035년의 노인 인구의 모습은 1995년의 모습과는 사뭇 다름. 구체적으로, 2035년에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로, 약 151천 명이 노인 인구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그 뒤를 서구(약 150천 명)와 부평구(약 141천 명)가 이을 것으로 보이며, 옹진군은 11천여 명으로 가장 적은 노인 인구수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됨.
- 1995년 대비 2015년의 노인 인구 증가율은 서구가 30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서구의 노인 인구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줌. 남동구와 연수구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40.0%와 212.5% 증가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이어서 2015년 대비 2035년의 노인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구가 275.0%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연수구와 중구가 각각 260.0%와 206.7%를 보여 그 뒤를 이음.
- 노인 인구 구성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1995년을 먼저 살펴보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가장 컸던 지역은 옹진군으로 16.8%의 비율을 보였고, 강화군이 13.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반면, 계양구와 서구는 각각 3.3%와 3.5%의 비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인구추계 자료를 통해 2035년의 노인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화군이 49.8%의 비율을 보여 노인 인구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옹진군이 41.3%로 두 번째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음.

- 2015년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0년 동안의 노인 인구 구성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가율은 부평구가 약 186.8%를 나타내 해당 기간 동안 가장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한 지역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동안 노인 인구 구성비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용진군이었으며 31.5%의 증가율을 보임. 이어서 2015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노인 인구 구성비의 증가율을 보면, 계양구가 230.6%로 가장 큰 폭의 증가 수준을 보이고 서구와 남동구가 각각 183.8%와 180.2%로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냄. 반면, 강화군이 71.7%로 가장 작은 증가율을 보이고, 용진군이 88.6%로 그 뒤를 이음.

II. 고령친화환경 개요

1. 고령친화환경의 개념

-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사회적 또는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움.
- 연구자마다 다양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지역사회’ 또는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함.
- 일반적으로 고령친화 지역사회는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활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가치를 존중받으며 지원을 받는 지역 환경’으로 일컬어짐(Alley, Liebig, Pynoos, Banerjee, & Choi, 2007).
- 고령친화환경의 개념을 도시라는 보다 구체적인 공간과 결부시킨 고령친화도시는 ‘사람이 나이 들에 따라 삶의 질 또한 함께 증진될 수 있도록 건강, 참여,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활동적 노화를 촉진하는 도시 환경’으로 언급됨(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7).
-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환경을 ‘활동적 노화의 기틀 안에서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능력(역량)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회정책, 서비스, 구조 및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능력 및 역량을 최적화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안녕을 최대화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참여를 촉진시키는 지역사회 및 도시 환경’으로 정의함.

2. 고령친화환경과 노인의 삶

- 고령친화환경은 노인의 삶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
-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고령친화환경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제시됨(고정은·이선희, 2012; 이상철·박영란·정은화, 2016; Kerr, Rosenberg, & Frank, 2012; Lehning, Smith, & Dunkle, 2014; Norstrand, Glicksman, Lubben, & Kleban, 2012).
- 또한 고령친화환경은 노인의 신체적 활동과 사회참여에도 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침(김수영·진재문·문경주, 2015; 이상철 외, 2016).
- 마지막으로 고령친화환경은 노인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 안녕(well-being), 노화불안과 같은 주관적 인식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이상철·박영란, 2016; 김성원·이은진·정순돌, 2016; 장영은·김신열, 2014; Lai, Lein, Lau, & Lai, 2016; Tiraphat, Peltzer, Thamma-Aphiphol, & Suthisukon, 2017).
- 이처럼 고령친화환경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소임.

3. 고령친화환경 실태

1) 국내외 도시의 고령친화환경 실태

-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선제적으로 고령친화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 일본의 아키타시(秋田県)와 타카라즈카시(宝塚市)는 WHO의 고령친화도시 8개 영역에 따라 행동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토야마시(富山市)의 경우에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전략을 세워 노인의 지역 생활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국내 도시 중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선례(先例)로 제시할 수 있음.

- 서울시는 2013년에 우리나라 도시 중 최초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고, 2016년부터 제2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중에 있음.
- 서울시는 WHO에서 제시하는 8개 영역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6개 영역으로 재구성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부산시는 2016년에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고, 가입 이후부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실행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 부산시는 WHO에서 제시하는 8대 영역을 기초로 부산시 고령친화마을 조성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총 9개 영역 3개 마을 유형으로 분류 및 개편함.

Ⅲ. 인천시 노인의 고령친화환경 인식과 생활 실태

1. 인천시 노인의 고령친화환경 인식

- 인천시의 고령친화환경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인천시 거주 노인(65세 이상) 1,5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조사 영역은 WHO(2007)에서 제시하는 8개 영역 즉, 거주환경(Outdoor spaces and buildings), 교통(Transportation), 주거환경(Housing), 지역사회 참여(Social participation), 노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통합(Respect and social inclusion),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영역별로 설문 문항을 구성함.
- 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거주환경
(Mean: 63.9)

거주환경의 쾌적성(70.2점), 공원 및 산책로의 접근성(70.2점),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의 충분도(63.4점), 거주지역의 범죄 안전성(62.8점), 인도의 통행 편의성(61.0점), 공중화장실의 이용 편의성(60.0점), 인도의 구조적 편의성(59.6점)

<p>- 교통 (Mean: 58.3)</p>	<p>대중교통을 통한 목적지 접근의 용이성(66.3점), 버스 이용의 안전성(62.6점), 버스 정류장의 편의성(62.5점), 교통표지판의 가독성(58.0점), 대중교통 정보의 가독성(57.0점), 택시의 보행보조기구 적재가능성(52.9점), 대중교통 수단의 계단 및 좌석 편의성(48.8점)</p>
<p>- 주거환경 (Mean: 62.8)²⁾</p>	<p>주거시설의 침수 안전도(70.3점), 주거시설의 기본설비 구비도(68.7점), 주거시설의 폭염 안전도(68.6점), 주거시설의 한파 안전도(65.6점), 주거시설의 전기 사고 안전도(64.5점),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도(64.4점), 주거시설의 범죄 안전도(63.2점), 주거시설의 개조 욕구도(63.0점), 주거비용의 부담도(36.8점)</p>
<p>- 지역사회 참여 (Mean: 52.1)</p>	<p>사회참여 활동의 충분도(58.3점), 사회참여 활동의 접근 편의성(53.5점), 사회참여 활동 정보의 접근 편의성(51.4점), 사회참여 활동의 비용 수준(50.4점), 시설 이용의 편의도(49.8점), 세대 간 교류를 위한 공간 보유도(49.3점)</p>
<p>- 노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통합 (Mean: 54.2)</p>	<p>관공서 직원의 친절도(65.7점), 세대 간 교류 기회의 정기성(53.9점), 주요 행위자로서의 참여 기회 충분도(52.1점), 대중매체의 노인 이미지 긍정적 표현도(51.3점), 세대 간 교류에서의 역할 기회 충분도(47.9점)</p>
<p>-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Mean: 48.6)</p>	<p>자원봉사활동 기회의 충분도(53.7점), 급여의 적절성(49.2점), 직업훈련 및 교육 기회의 충분도(47.6점), 일자리의 충분도(47.5점), 취·창업 정보의 접근 편의도(47.2점),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관의 충분도(46.6점)</p>
<p>-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 (Mean: 52.7)</p>	<p>노인 관련 정보 제공의 정기성(55.7점), 공공 인쇄물의 가독성(54.2점), PC 및 인터넷의 접근 용이성(53.6점), 무인기기 활자의 가독성(50.4점), 무인기기의 구조적 편의도(49.5점)</p>
<p>-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Mean: 59.9)</p>	<p>보건서비스의 충분도(64.7점), 복지서비스의 충분도(62.7점), 보건 정보의 접근 편의도(59.2점), 복지시설의 이용 편의도 및 안전도(57.7점), 복지정보의 접근 편의도(57.7점), 보건시설의 이용 편의도 및 안전도(57.5점)</p>

-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천시 노인은 사회활동과 관련된 영역(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역사회 참여,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 노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통합)에서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임.

2. 지역사회의 고령친화도와 노인의 생활 특성 간 관계

- 위와 같은 고령친화환경은 노인의 다양한 삶의 특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환경 영역의 경우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과 고립감 및 소외감 경험 정도, 지역사회의 노인거주 적합도 인식 수준, 거주지 이전 의향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의 경우에는 노인의 실외 취미 및 여가활동, 친목 및 사교활동, 노인복지시설 이용 여부, 고립감 및 소외감 경험 정도, 지역사회의 노인거주 적합도 인식 수준, 거주지 이전 의향 등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임.
 - 주거환경 영역은 노인의 경제적 수준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고립감 및 소외감 경험 정도,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의 노인거주 적합도 인식 수준, 거주지 이전 의향 등과 의미 있는 관계성을 나타냄.
 - 지역사회 참여 환경 역시 노인의 실외 취미 및 여가활동, 친목 및 사교활동, 교육활동,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우울감 경험 정도, 고립감 및 소외감 경험 정도, 지역사회의 노인거주 적합도 인식 수준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임.
 - 노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은 우울감 경험 정도,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타인과의 접촉 수준, 고립감 및 소외감 경험 정도, 지역사회의 노인거주 적합도 인식 수준, 거주지 이전 의향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을 가짐.
 -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영역의 환경 요인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과, 우울감 경험 정도, 타인과의 접촉 수준, 고립감 및 소외감 경험 정도, 삶의 만족도, 노인일자리 상담기관 이용 의사, 지역사회 노인거주 적합도 인식 수준, 거주지 이전 의향 등과 의미

2) 해당 평균 점수는 영역의 성질이 다소 상이한 '주거시설의 개조 욕구도'의 점수는 포함하지 않은 것임.

있는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 영역의 관련 요인들은 노인의 교육활동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우울감 경험 정도, 타인과의 접촉 수준, 고립감 및 소외감 경험 정도, 삶의 만족도, 노인복지시설 이용 여부, 노인복지시설 이용 의사, 지역사회 노인거주 적합도, 거주지 이전 의향 등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임.
-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환경은 노인의 실외 취미 및 여가활동과 친목 및 사교활동,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우울감 경험 정도, 노인복지시설 이용 여부, 고립감 및 소외감 경험 정도, 지역사회 노인거주 적합도 인식 수준, 재가 돌봄 선호 수준, 시설 돌봄 선호 수준, 거주지 이전 의향 등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성을 나타냄.

IV. 정책적 제언 및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p>-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확충 ·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관심 제고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속을 위한 유인기제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임금과 고용안정성,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개발
<p>- 지역사회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 공간을 활용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노인 주(主) 이용 시설의 이용 편의성 증진 · 노인 여가·문화 특화 지역 발굴 및 개발
<p>-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기기의 구조적 편의성 증진 · 공공 인쇄물과 무인기기의 활자 가독성 개선 · 노인 대상의 생활정보지 발간 및 배포
<p>- 노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대중매체에서의 노인 이미지 긍정적·활동적 표현 ·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과정에서 노인의 참여 기회 확대

-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의 수 및 노선 확대 · 대중교통 정보의 가독성 증진
-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시설의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 · 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비용 주거시설의 확충 · 노인 거주 지역의 범죄 안전성 증진
- 거주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환경의 개선 · 공중화장실의 이용 편의성 증진

- 인구 고령화에 대한 현재의 패러다임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 사회 성장의 또 다른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노인이 경제 및 사회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의 활동과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는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 노인은 지역사회의 고령친화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인식과 평가를 나타냄.
- 또한 각 영역의 고령친화 수준은 노인의 삶의 특성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음.
- 이와 같은 일련의 결과들은 고령친화환경의 조성이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인천시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령친화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경제적 및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 영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환경은 일견(一見) 노인만을 위한 환경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 그러나 고령친화환경은 다양한 연령과 특성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이 욕구를 충족키시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더불어 사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함(김수영 외, 2014 이상철 외, 2016; 정순돌·윤희수, 2014; 정순돌 외, 2015; WHO, 2007).

-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고령친화환경의 조성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통합된 도시로 인천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임.

참고문헌

- 고정은 · 이선희(2012). 노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322-351.
- 김성원 · 이은진 · 정순돌(2016). 다층모형을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 분석: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6(3), 581-594.
- 김수영 · 진재문 · 문경주(2015).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삶의 조건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 31(2), 1-24.
- 이상철 · 박영란(2016).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이 삶의 만족 및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집단별 비교 연구. 한국사회정책, 23(2), 173-200.
- 이상철 · 박영란 · 정은화(2016). 노인이 인식한 고령친화 환경의 구성개념과 활동적 노화와 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도시연구, 17(2), 119-137.
- 장영은 · 김신열(2014). 고령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이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8(3), 255-284.
- 통계청(2012). ‘인구총조사: 인천광역시 총조사인구 총괄(읍면동/성/연령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001_23&conn_path=I2. 검색일 2018-04-26.
- 통계청(2017a). ‘장래인구추계: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등)/ 시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B003&conn_path=I3. 검색일 2018-04-11.
- 통계청(2017b).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읍면동’. <http://kosis.kr/statHtml/statHtml>.

-
- 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2. 검색일 2018-04-26.
- 통계청(2018a).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http://kosis.kr/statHtml/statHt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3. 검색일 2018-04-11.
- 통계청(2018b). ‘인천광역시군구별장래인구추계: 군·구별 유소년, 생산가능, 고령인구 및 구성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4&tblId=DT_204O_A5&conn_path=I2. 검색일 2018-04-26.
- Alley, D., Liebig, P., Pynoos, J., Banerjee, T., & Choi, I. H.(2007). Creating elder-friendly communities: Preparations for an aging societ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9(1-2), 1-18.
- Kerr, J., Rosenberg, D., & Frank, L.(2012). The role of the built environment in health aging: Community design,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7(1), 43-60.
- Lai, M. -M., Lein, S. -Y., Lau, S. -H., & Lai, M. -L.(2016). Modeling age-friendly environment, active aging, and social connectedness in an emerging Asian economy. *Journal of Aging Research*, 2016, 1-14.
- Lehning, A. J., Smith, R. J., & Dunkle, R. E.(2014). Age-friendly environments and self-rated health: An exploration of Detroit elders. *Research on Aging*, 36(1), 72-94.
- Norstrand, J. A., Glicksman, A., Lubben, J., & Kleban, M.(2012). The role of the social environment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6, 290-307.
- Tiraphat, S., Peltzer, K., Thamma-Aphiphol, K., & Suthisukon, K.(2017). The role of age-friendly environments on quality of life among Thai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4(3), 282.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Retrieved from http://www.who.int/ageing/publications/age_friendly_cities_guide/en/. [Accessed 12 April, 2018].

ICAS 정책이슈&진단 (2018-02)

인천시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발행인 : 원 미 정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처 :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

TEL. 032-715-5491 FAX. 032-715-5319

인쇄처 : 디자인뎃(032-201-877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에 있음

